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이 아 름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김 진 숙<sup>†</sup>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연구의 동향분석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를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국내에서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관련 국내 논문 162편에 대해 연도별 현황,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체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중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 논문 12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양적연구 54편(33.3%), 질적연구 42편(25.9%), 문헌연구 34편(21%), 혼합연구 32편(19.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은 성인 45편(27.8%), 아동 36편(22.2%), 청소년 26편(16%)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 관련 연구 70편(43.2%)가 가장 많았으며, 외상 관련 32편(19.8%), 신체적 반응 관련 23편(14.2%)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 12편에서 산출된 101개의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효과 크기는 1.07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연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 동향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메타분석, 효과크기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진숙,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Tel: 053-950-5813, E-mail: flow@knu.ac.k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박사방 조주빈’,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 ‘방송인 정준영’, ‘시인 이운택’, 연령도 직업도 각기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성폭력’이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보고서(2019)’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의 내용 중 40%가 젠더이슈에 해당되고, 그 중 여성폭력 이슈가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이슈 청원 글을 대상으로 TF-ID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매매, 몰카(불법 촬영), 무고죄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되었다(최유진, 2019).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청의 연도별 성폭력 범죄분석 통계(2020)를 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2010년 20,584건, 2014년 29,863건, 2019년 32,02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성범죄가 신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범죄 신고율은 약 12%로 추정되기에 실제로는 2~3분에 1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예측되고 있다(조영성, 송지연, 이준영, 2016). 또한, 성폭력 실태조사(2013)에서는 피해자의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성폭력 피해 범죄 신고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윤덕경 외, 2013). 이렇듯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높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정신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을 매개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총칭한다(김연수 외, 2016; 도상금, 2006; 원경희, 2008).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여 가해자가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성희롱에서부터 강간까지 성(性)을 매개로 가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박다원, 이인혜, 2016; 장수진, 신숙경, 김수임, 2020; 최혜정, 2013).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성에 관한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인터넷 등을 통한 불쾌한 경험 등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성폭력의 양상은 점점 진화되고 다면화되고 있기에 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황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감정적 혼란과 사건 당시 느꼈던 공포감이 지속되는데(조영성 외, 2016), 증상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 피해자의 발달단계,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체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김지혜, 2011; 신기숙, 2011).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 우울, 수치심, 소외감,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 자살, 행동 위축, 공격 행동, 비행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행동 문제, 그 외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개념, 대인관계 문제,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부정

적 인지 도식 등이 있다(권해수 2014; 김보경, 2012; Mason & Lodrick, 2013).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재유포가 끊없이 이루어져 불법 촬영물이 어디에 유포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완전 삭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2020).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아야 하고(조운숙, 2004; Perrin, 2013),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야 한다(조영성 외, 2016; Harvey, 1996).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기까지 15~20년이 걸리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60~70%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ahtinen, Laitila, Korkman, & Ellonen, 2018; Lemaigre, Taylor, & Gittoes, 2017; Steine et al., 2016). 또한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였을 때 성폭력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나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 전가하기 등의 2차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이미정, 2012; Gibson & Leitenbeng 2001; Littleton & Breitkopf, 2006). 성폭력 관련 단체들이 피해자를 위한 법적·의료적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처럼 피해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였을 때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 및 치료적 서비스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상담 모델이나 표준화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권해수, 2014; 이인선, 이미정, 김기현, 2014). 지금까지 성폭력을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협받는 외상 경험으로 인식하여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외상 증후군으로 접근하는 입장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조영성 외, 2016; 채규만, 2004). 그중 주목받는 치료 기법으로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rauma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가 있다. 하지만 TF-CBT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Cohen, Deblinger, & Mennarino, 2004; Cohen, Mennarino, & Deblinger, 2006; Cohen, Mennarino, & Deblinger, 2017; Deblinger, Stauffer, & Steer, 2001),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역시 성학대 피해아동 대상 연구(최지영, 신의진, 오경자, 2009)가 유일하다. 다행히 2001년 1편에 불과했던 성폭력 피해자 관련 논문이 2020년 현재는 160여 편이나 발표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효과적인 개입 방법 등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상담적 개입 마련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대상이나 연구주제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성폭력 관련

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장수진 등(2020)의 연구가 유일한데, 연구주제가 ‘친족 성폭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확립된 상담모델이 미흡한 가운데, 수치심, 낙인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으로 집단상담이 활용되어 왔다(Cole & Putman, 1992; Herman, 1992). Yalom(1995)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집단상담은 희망,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주의, 대인관계기술, 그룹 응집력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집단상담은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비밀과 고립을 깨트리며, 공통된 경험과 반응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부정적 영향을 정상화하여 낙인찍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Sweig, 2000). 아울러, 집단원들이 서로의 피드백과 지지를 통해 스스로 유용한 사람으로 경험하고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돕고, 왜곡된 신념을 수정할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대처방식 학습을 증진한다(Sweig, 2000). 이런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비슷한 피해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류분순, 2009; 이소형, 2013; Corder, 2000).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한 회복 프로그램(김유진, 2019),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기 표출 훈련 프로그램(김명희, 2001)이 있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무용동작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류분순, 2009), 성폭력 대처방식과

표현에 초점을 둔 예술치료 프로그램(김민정, 2013), 자존감 향상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나수연, 2013; 박민자,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와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프로그램(이형진, 금민호, 2014) 등이 있다. 또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박영화, 2014), 용서 글쓰기를 활용하여 우울과 수치심 및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하늘, 2012), 사회적 회피 및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권옥빈, 2016)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이영현, 2015)이 있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기에 외적타당도가 낮아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예: 송영혜, 심희경, 2001; 이은진, 2007), 둘째, 메타분석 연구 틀을 따르지 않고 사전·사후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예: 김민정, 2013; 김유진, 2019; 나수연, 2013), 그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특성 등이 효과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인 메타분석(황성동, 2014)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를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방법으로 적용되어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동향분석에 포함된 연구물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메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물들을 종합·고찰하여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물에 대한 전통적인 리뷰 연구인 동향 분석에서 체계적인 리뷰 연구(메타분석)로 확장하는 연구설계를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연구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후속 연구 모색과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선정 및 수집

본 연구의 동향분석을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논문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을 분석 시작 시점으로 정하여,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성폭력 피해자 관련 학술지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국회도서관(www.nanet.go.kr),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www.kcigo.kr), 학술논문 전문 검색(kiss.kstudy.com) 등에서 ‘성폭력’, ‘피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외에도 ‘성’, ‘성학대’, ‘성피해’, ‘성희롱’, ‘강간’, ‘sexual abuse’, ‘sexual assault’으로 다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2,319편의 자료 중 학위논문과 동일한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세부 정보가 나와 있는 학위논문을 분석하였고,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에서 인쇄본으로 출간된 연구물로 제한하였다. 또한 키워드로 검색은 되나 실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논문(일반 집단-일반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변인 연구),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논문 등은 제외하였다. 최종 자료수집 결과, 학위논문 67편(석사 49편, 박사 18편), 학술지 95편으로 총 162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동향분석에서 사용된 논문 중 Higgins와 Green(2008)이 제안한 PICOS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Participants)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개입방법(Intervention)으로 집단상담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비교집단(Comparison)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험집단과 비교하여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기준으로 했다. 연구

결과(Outcomes)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연구 설계 유형(Study designs)으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효과를 비교한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했다. 단, 통제집단이 없거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 나타내지 않은 연구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총 12편(학위논문 11편, 학술지 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크게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동향분석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 선행연구(윤혜미, 2010; 장수진 외, 2020)와 상담학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선행연구(박경애, 백지은, 2017; 서경현, 2017; 신애자, 김용수, 2016;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를 참고하여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분석 준거인 발표연도,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를 기본적인 분석 준거로 설정하고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세부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10년 이상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연구자가 1차 분류기준 및 선정될 내용을 결정하고, 전문가인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이 분류된 내용을 2차 확인하여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발표 연도는 논문이 게재된 연

도를 기준으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의 연구 수를 1년 단위로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문헌 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 연구와 조사 연구를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질적 연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며, 혼합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로 분류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따라 피해양상이나 후유증, 지원 방법 등에 차이를 보이고 이를 많은 연구에서 구분하여 다루고 있기에(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2014; 김민정, 2013; 이건승, 2020; 이미정, 윤덕경, 이현혜, 2015;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정진옥, 2008) 연구대상의 세부 분류기준을 성별, 연령, 장애유무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대상을 살펴본 후 성별의 경우, 여성, 남성,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의 경우 아동, 아동-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성인, 대학생, 성인, 아동-성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고 기타는 연구대상의 연령의 정보가 없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장애유무의 경우, 장애, 비장애, 혼합으로 분류하였고, 혼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연구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연구주제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Gil(1988)의 기준과 이명희(2003), 이효진(201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서, 인지, 대인관계, 신체적 반응(행동),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외상)으로 나뉜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의 준거

분석준거	내용	
발표연도	2000년부터 1년 단위	
연구방법	1. 양적 연구 (조사 연구, 프로그램 효과 연구) 2. 질적 연구 (사례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합의적 질적 분석, 내러티브, 기타) 3. 혼합 연구(양적 연구+질적 연구) 4. 문헌 연구	
연구대상	1. 성별(여, 혼합) 2. 연령(아동, 아동-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성인, 대학생, 성인, 아동-성인, 해당 없음) 3. 장애유무 (장애, 비장애, 혼합)	
정서	[자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긍정도, 자기정체성,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자기표출, 자기표현 [우울과 불안] 우울, 소아우울, 소아 표출 불안, 불안,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상태-특성 불안 [기타 정서 관련 요인] 정서조절, 정서표현, 수치심, 소외감, 삶의 만족도, 투지	
주제	인지	자살생각, 성폭력 귀인, 성지식, 성인식
	대인관계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신체적 반응 (행동)	자살위험, 자살시도, 성행동 특성, 비행 행동, 공격 행동,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역기능적 태도, 성폭력 대처방식, 성태도, 뇌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기 후유증, 외상 후 성장, 외상 관련 증상 평가, 복합 외상, 사건 충격, 외상 후 인지, 성학대 피해 증상, 성학대 영향 평가, 회복탄력성, 학교적응, 심리적 부적응	

Note. Gil(1988) includes self-concept in emotions.

###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오성삼(2002)이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코딩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XCEL에 입력하였고, 논문의 전체 효과크기, 중재 변인 및 종속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4.0.3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s *d* 효과 크기 계산법을 사용하였는데, Cohen's *d*는 표본이 작을수록 효과 크기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교정해주는 Hedges' *g*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 통계치를 활용하여 모든 효과크기가 같은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정하는

지 확인하고, *I*<sup>2</sup>통계치를 산출하여 연구 수가 적을 경우 검증력이 낮아지는 *Q* 통계치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의 연구방법, 표본, 개입 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무선 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중재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연구 논문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선행 메타분석 연구가 없기에 유사 연구인 성학대 관련 메타분석 연구(이진영, 2017)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메타분석 연구(문은주, 2015a; 문은주, 2018; 박은선, 김진숙, 2021; 신애자, 김용수, 2016; 정귀임, 김장희, 2019)를 참고하여 중재변인을 선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유무, 시설 이용 유무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의

표 2. 종속변인 분류

구분	내용
보호 요인	자아존중감, 외상 후 성장, 용서, 삶의 만족도, 정서조절, 자아정체감, 성지식, 성태도, 투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성의식, 자기표현, 성폭력 귀인(타인귀인), 성폭력 대처방식(인지/표현적 대처방식),
위험 요인	심리적 부적응, 수치심, 우울, 청소년 문제 행동, 성폭력 후유증, 사회적 회피, 사회적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 불안, 상태 분노, 특성 분노, 정서 표현 부족, 성폭력 귀인(자기 귀인), 성폭력 대처방식(자기/파괴적 대처방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 동기, 매체사용 유무, 집단 크기, 총 회기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종속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종속 변인을 다룬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양준석, 이정은, 유지영, 2017)를 참고하여 종속 변인을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보호 요인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통해 출간 오류가 있는지 분석하고, Trim-and-Fill 방법(Duval & Tweedie, 2000)을 활용해서 출간 오류가 전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 결 과

### 동향분석

#### 연도별 논문 수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 67편(석사 49편, 박사 18편), 학술지 95편으로 총 162편이

있고, 이를 1년 단위로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1편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6편 이하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6년 11편, 2007년 7편, 2008년 13편, 2009년 7편, 2010년 9편으로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2014년까지 평균 6편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가 주춤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10편 이상의 연구(2019년 7편 제외)가 발표된 것을 보아,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차함수 기반의 LMS(Least Mean Square)<sup>1)</sup> 기법을 활용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빈도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54편(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적연구 42편(25.9%), 문헌연구 34편(21%), 혼합연구 32편(19.8%)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하위내용을

1) LMS(Least Mean Square): 최소 제곱법 또는 최고 자승법. 어떤 계의 해방정식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려는 해와 실제 해의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방법(김정택, 2019). 자료들 사이에서 경향성을 도출하는 데 쓰임.



표 3. 연도별 논문 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편수	1	6	3	6	4	5	11	7	13	7	9
%	0.6	3.7	1.9	3.7	2.5	3.1	6.8	4.3	8.0	4.3	5.6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편수	5	7	7	7	13	11	11	12	7	10	162
%	3.1	4.3	4.3	4.3	8.0	6.8	6.8	7.4	4.3	6.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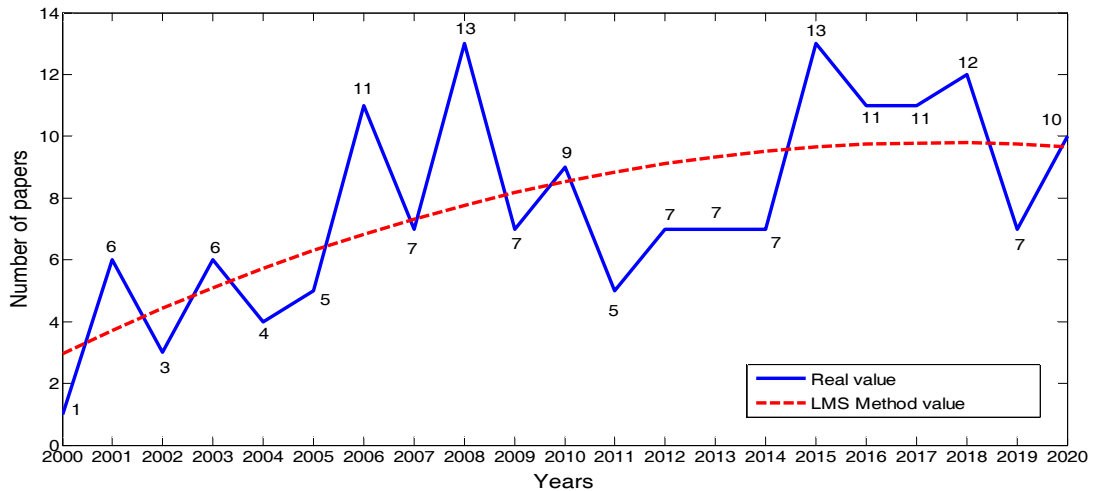


그림 1. LMS기법을 이용한 경향성 분석

살펴보면, 조사연구는 28편(17.3%)으로 나타나고 프로그램 효과연구 26편(16.0%)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경우,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사례연구가 15편(9.3%),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12편(7.4%), 근거 이론이 5편(3.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합의적 질적 분석, 내러티브 연구방법 등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졌다. 혼합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활용한 연구로 32편(19.8%)으로 나타났으며, 문헌 연구는 34편(21.0%)으로 나타났다.

####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대상 분석 결과를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성인 대상 연구가 45편(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동 대상 36편(22.2%), 청소년 대상 26편(16.0%), 청소년 및 성인 대상 12편(7.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5편(3.1%), 대학생 대상 3편(1.9%), 아동 및 성인 1편(0.6%)이었다. 기타는 특정 연구대상이 없는 경우로 34편(21.0%)이다. 성인 대상 연구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5편(21.6%)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6.2%)이었다. 아동 대상 연구의 경우, 장

표 4. 연구방법별 하위 분석방법

연구방법	빈도(%)	연구방법 하위 내용	빈도(%)
양적연구	54(33.3)	조사연구 <sup>1)</sup>	28(17.3)
		프로그램 효과연구	26(16.0)
		사례연구	15(9.3)
질적연구	42(25.9)	현상학적 연구	12(7.4)
		근거 이론	5(3.1)
		합의적 질적분석	2(1.2)
		내러티브 연구	2(1.2)
		기타 <sup>2)</sup>	6(3.7)
혼합연구	32(19.8)	양적연구+ 질적연구	32(19.8)
문헌연구			34(21.0)
전체			162(100)

<sup>1)</sup> 변인연구, 동향연구, 메타분석 연구

<sup>2)</sup> 생애사, 참여관찰, 자문화기술지, 놀이치료 주제 분석 체계, Sand-Tray 분석, 빈도 및 내용분석

표 5. 연구 대상별 분류

연구대상	빈도(%)	장애유무	빈도(%)
아동	36(22.2)	비장애	36(22.2)
		장애	0
아동 · 청소년	5(3.1)	비장애	5(3.1)
		장애	0
청소년	26(16.0)	비장애	21(12.9)
		장애	5(3.1)
청소년 · 성인	12(7.4)	비장애	6(3.7)
		장애	5(3.1)
		혼합	1(0.6)
대학생	3(1.9)	비장애	3(1.9)
		장애	0
성인	45(27.8)	비장애	35(21.6)
		장애	10(6.2)
성인 · 아동	1(0.6)	비장애	1(0.6)
		장애	0
기타		34(21.0)	
종합		162(100)	

Note. 아동: 13세 이하, 청소년 14~24세, 성인 24세 이상

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으나, 청소년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편(12.9%),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3.1%)이었다.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3.7%)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3.1%)이며, 혼합<sup>2)</sup>연구가 1편(0.6%)이었다.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다.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의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 대상만 적시되어 있고 특정 종속변인을 선정하지

않은 몇몇의 질적연구와 문헌연구를 제외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 관련 연구가 70편(4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상 관련 32편(19.8%), 신체적 반응 관련 23편(14.2%), 인지 관련 10편(6.2%), 대인관계 관련 8편(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 관련 연구 중 우울과 불안 관련 연구가 34편(48.6%), 자아 관련 연구가 29편(41.4%)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체 평균 효과크기**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2편의

표 6. 연구 주제별 분류

주제	내용	빈도(%)
정서	[자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긍정도, 자기정체성,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자기표출, 자기표현 [우울과 불안] 우울, 소아우울, 소아 표출 불안, 불안,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상태-특성 불안 [기타 정서 관련 요인] 정서조절, 정서표현, 수치심, 소외감, 삶의 만족도, 투지	70(43.2)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기 후유증, 외상 후 성장, 외상 관련 증상 평가, 복합 외상, 사건 충격, 성학대 피해 증상, 성학대 영향 평가, 학교적응, 심리적 부적응	32(19.8)
신체적 반응(행동)	자살위험, 자살시도, 성행동 특성, 비행 행동, 공격 행동,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역기능적 태도, 성폭력 대처방식, 성태도, 너파	23(14.2)
인지	자살생각, 성폭력 귀인, 성지식, 성인식, 외상 후 인지	10(6.2)
대인관계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8(5.0)
기타	질적연구 및 문헌 검토 등	19(11.7)
종합	162(100)	

표 7. 전체 평균 효과크기

k	평균효과크기( $ES_r$ )	95% 신뢰구간	$T^2$	$I^2$	$Q(p)$
101	1.07	.93~1.22	.29	53.2	213.50(.0001)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집단으로 구성한 연구

분석 논문으로부터 101개의 효과크기를 추출했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효과크기는  $\leq .20$ 이면 작은 효과크기,  $=.50$ 은 중간 효과크기,  $\geq .80$ 이면 큰 효과크기라고 제시한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 무선효과 모형에 따라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0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이 .93~1.2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은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큰 크기의 효과 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전체 평균 효과 크기 1.07을 비중복 백분위( $U^3$ )를 통해 변환하면 85.77%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는 정규분포 곡선 상에서 통제 집단의 평균을 50%라 가정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약 35.77%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Higgins와 Green(2011)에 따르면,  $I^2$ 의 값이 50% 이상이고,  $Q$ 값의 유의 확률 값이 .10보다 작을 때( $p < .10$ )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추출된 개별 연구들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I-squared 검정 결과,  $I^2$ 이 53.2% 나타났으며,  $Q$ 값의 유의 수준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 연구물들의 효과크기가 상당히 이질적이며, 개별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중재 변인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 중재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중재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재 변인을 크게 대상자 특성과 운영방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특성(성별, 연령, 장애, 시설 이용)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시설 이용 유무의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장애 유무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혼성 1.82, 여성 .97로 두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의 경우 평균 효과크기가 성인 1.48, 청소년 .87, 혼합 .71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청소년, 혼합 모두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효과 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장애유무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장애 있음'이 1.27, '장애 없음'이 1.01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설 이용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시설 미이용이 1.56, 시설 이용이 .83으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두 번째, 운영방식 특성(참여 동기, 매체, 집단 크기, 회기 수)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 회기수의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참여 동기, 집단 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동기는 자발 1.14, 비자발 1.02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나,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체는 '매체 미활용' 1.22, '매체 활용' .92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집단 크기의 경우, 10명 이상 1.14, 10명 이하 1.01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 회기 수는 10회 미만 1.47, 10회 이상 .58로 10회 미만의 경우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10회 이상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

표 8. 중재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i>k</i>	<i>ES<sub>r</sub></i>	95% CI	<i>f</i> <sup>2</sup>	<i>Q(p)</i>	
대상자 특성	성별	여	90	.97	.83~1.12	.21	7.87
		혼성	11	1.82	1.25~2.40	.66	(.005)
	연령	청소년	35	.87	.62~1.12	.36	26.76
		성인	44	1.48	1.27~1.70	.18	(.0001)
		혼합	22	.71	.50~.93	0	
	장애 <sup>1)</sup>	장애 없음	74	1.01	.85~1.18	.28	1.98
		장애 있음	27	1.27	.95~1.58	.32	(.160)
	시설 이용 <sup>2)</sup>	시설 이용	66	.83	.68~.98	.13	19.74
시설 미이용		35	1.56	1.27~1.85	.40	(.0001)	
운영 방식	참여 동기	자발	43	1.14	.94~1.34	.17	.57
		비자발	58	1.02	.81~1.24	.40	(.452)
	매체	매체 활용	44	.92	.75~1.10	.12	3.96
		매체 미활용	57	1.22	.99~1.45	.45	(.0477)
	집단 크기	10명 미만	58	1.01	.83~1.20	.19	.72
		10명 이상	43	1.14	.91~1.37	.38	(.396)
	총 회기수	10회 미만	59	1.47	1.25~1.68	.38	44.06
		10회 이상	42	.58	.44~.73	0	(.0001)

Note. 청소년: 24세 이하, 혼합: 청소년, 성인이 혼합

<sup>1)</sup> 장애 : 지적장애가 있는 자

<sup>2)</sup>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로 유의했다.

### 종속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종속 변인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평균 효과크기는 보호 요인이 1.34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이 1.11~1.5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위험 요인은 .7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이 .62~.93로 0을 포함하지 않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 크기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보호 요인은 큰 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험 요인은 중간

표 9. 종속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구분	<i>k</i>	평균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i>f</i> <sup>2</sup>	<i>Q(p)</i>
보호 요인 (자아존중감, 외상 후 성장, 용서, 삶의 만족도 등)	60	1.34	1.11~1.57	.49	16.41
위험 요인 (심리적 부적응, 수치심, 우울, 청소년 문제 행동 등)	40	.77	.62~.93	0	(.0003)

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출간 오류 분석**

분석대상 연구들의 효과성 분석이 전체 연구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간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출간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통해 시각적으로 비대칭 여부를 판단하였고, Egger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Funnel Plot의 비대칭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출간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을 실시하였다. Figure 2을 살펴보면, 기준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분포하여 비대칭이 있음을 볼 수 있고, Egger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t=8.023$ ,  $d\neq 99$ ,  $p\text{-value} < 2.139e-12$ 로  $p\text{-value}$ 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므로 출간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출간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trim-and-fill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Trim-and-fill의 교정 값은 32개이고, 보정된 평균 효과크기는 .69이기에 관찰된 평균 효과크기 1.07보다 약 38%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정된 평균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의 값이 .52~.86으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가 출간 오류가 있지만 전체 연구 결과를 반복할 정도의 심각한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기존의 성폭

표 10. Trim-and-fill로 조정하기 전과 후의 평균 효과크기

	추가된 $k$	평균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T^2$	$I^2$	$Q(p)$
관찰 값		1.07	.93~1.22	.29	53.2	213.50(.0001)
교정 값	32	.69	.52~.86	.68	70.9	454.13(.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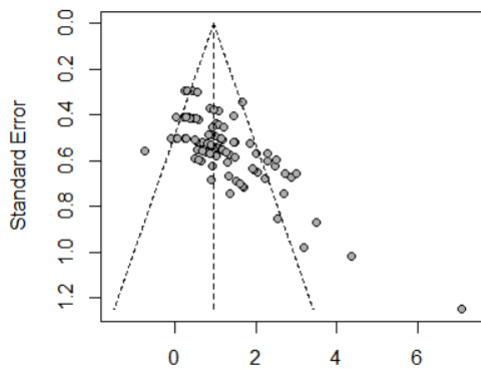


Figure 2. Funnel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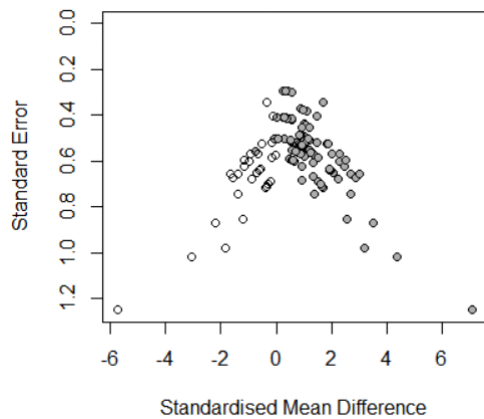


Figure 3. Trim-and-fill after Funnel Plot

력 피해자 관련 연구를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물에 초점을 두고 종합 고찰하여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성폭력 피해자 관련 논문 162편을 선정하고, 4가지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분석대상 논문 162편 중 PICOS기준에 따라 선정된 1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그의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에 대한 연도별 논문수를 보면, 2005년 이전에는 매년 6편 이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가 2006년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 2005년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sup>3)</sup>,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sup>4)</sup>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2006년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6편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가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또한 사회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2015년 새로운 방식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운동이 나타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가해자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2016년 '#○○계 성폭력'과 같은 해시태그 형태로 말하기가 이어졌고,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운동은 '미투'라는 단어와 결합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장되었다(김보화, 2019; 김효인, 2017). 이렇듯 성폭력 관련 시대적 관심과 사회적 운동이 확장되어 온 것이 2015년 이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는 이차함수 기반의 LMS기법으로 2020년까지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30년을 기준으로 LMS기법을 통한 경향성을 확인해본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연구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30% 정도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기(공준옥, 김봉환, 2014; 박가람, 정남운, 2008), 시대적 관심과 사회적 운동을 떠나, 현재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양적 연구가 54편(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적연구 42편(25.9%), 문헌연구 34편(21%), 혼합연구 32편(19.8%)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으나,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를 활용한 연구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2009년 「한국심리학

3) 밀양 남고생 44명이 중고생 여러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 여중생들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킴.

4)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방법 유형을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전체 86.5%, 질적연구 12.2%, 혼합연구 1.3%로 조사되었고(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김정란, 장유정, 조항(2019)의 동향연구 연구방법 유형을 살펴보면, 양적연구 59.7%, 질적연구 26.4%, 문헌고찰 11.1%, 혼합연구(개념도 포함)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포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발표 연도를 살펴보면, 2005년 이전 논문은 문헌연구와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2006년 이후에 서야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발표된 47편의 논문 중 16편(34%)이 양적 연구법을 활용하였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15년과 2020년 사이 발표된 64편의 논문 중 25편(39%)이 양적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2010년 이전의 양적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변인연구 비중이 높았다. 이는, 2010년 이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높았다면, 2010년 이후에는 변인연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 실제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변인들을 확인하여 심리과정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검증하는 쪽(서영석, 2010)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대상 분석 결과를 보면, 성인 대상 연구가 45편(27.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아동 대상 36편(22.2%), 청소년 대상 26편(16.0%), 청소년 및 성인 대상 12편(7.4%), 아동 및 청소년 대상 5편(3.1%), 대학생 대상 3편(1.9%), 아동 및 성인 대상 1편(0.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시기가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이지만, 성폭력은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목격하기 힘들고, 가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김현정, 2010). 또한 가해자가 가족 내에 있을 때 이중 구속을 갖게 되어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공개하기가 더 어렵다(Halvorsen & Solberg, 2020). 그렇기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연구가 비율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초 자료의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Munley, 1974). 다만, 아동 대상 연구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성인의 경우 2015년 이후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논문 128편 중 비장애인 대상 연구가 107편(83.6%)이고 장애인 대상 연구(혼합포함)가 21편(16.4%)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보다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한 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에 피해 정도와 후유증이 더 심각하고, 피해가 지속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데(이영현, 2015), 장애인 대상 연구의



비중은 월등히 낮다.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진행이 어려워 이들의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한 연구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연구 주제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 관련 연구가 70편(4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상 관련 32편(19.8%), 신체적 반응 관련 23편(14.2%), 인지 관련 10편(6.2%), 대인관계 관련 8편(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 관련 연구 중 우울과 불안 관련 연구의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고, 자아관련 연구의 비중이 4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기능장애 중 우울과 불안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신경민, 2014; Campbell, Dworkin, & Cabral, 2009; Dworkin, Menon, Bystrynski, & Allen, 2017). 1980년 중반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의 시작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과 피해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에 만연해 있던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통주의적 접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단이 되었다(문현주 2015).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잘못된 관념을 타파하고 성폭력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관심을 두게 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정서 관련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치명적이고 강도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보여주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이들을 위

한 다양한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심각한 심리·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가정하고 기대하는 소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게 된 부작용을 낳은 측면도 있다. ‘피해자다움’은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시켜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만든다. 이러한 잘못된 피해자다움의 신화로 인해 무고 관련 문제 제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차진영 사건<sup>5)</sup>이 대표적인 사례이다(허민숙, 2017).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난 특성을 지닌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고려한 연구주제 선정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 연구 주제 중 정서관련 주제 가운데 자아 관련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손상된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 개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Sharice(1995)가 제안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감정, 태도 및 신념을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혀졌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좋지 않게 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경험은 손상된 자아개념이나 자아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5) 강제 추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뒤 2년8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최초로 진행했던 ‘성범죄에 대한 무고’ 관련 공익 소송

위한 연구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별 연구주제를 분석해 보면,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 관련 연구가 공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아동의 경우는 문제 행동, 청소년의 경우는 자아, 성인의 경우 외상 관련 연구가 많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연구가 많은 것은 신체·정서적 문제보다는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김현수, 배민진, 신문희, 주지영(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아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Erikson(1968)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과 동시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기이다. 이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 즉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면 주요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자아정체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의 경우에는 외상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성폭력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외상이며, 다른 유형의 외상에 비해 사건의 강도가 높고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이난주, 2020). 물리적 폭력(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이후 정신장애를 가질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

배나 높다고 한다(김양중, 2019).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심각한 증상이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무선 효과 모형에 따른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07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 메타분석 연구가 없어 이러한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사 연구인 아동기 성학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이진영, 2017)와 비교해본 결과, 성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효과크기가 1.01로 본 연구의 효과크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기존의 성학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 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제 집단이 없는 연구를 포함하여 결과값에 반영하였고, 인지행동치료 요인을 포함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하였기에 다른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Higgins와 Green(2008)이 제안한 PICOS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고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에, 다각적인 관점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산출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지금까지 개발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나타내기에 실제 상담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이 12편에 불과하여, 평균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중재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대상자 특성에서 성별, 연령, 시설 이용 유무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장애 유무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운영방식 특성에서는 매체 이용 유무,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참여 동기, 집단 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혼성 집단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집단상담을 구성할 때 혼성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며, 혼성 집단이 동성집단보다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구슬이, 김진숙, 2017; 이장호, 김정희, 2013)와 부합한다. 다만,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지만 여성비율이 94%이상인 집단으로 구성된 혼성집단에 대한 결과이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의 경우, 성인, 청소년, 혼합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진행되는 청소년보다 좀 더 성숙한 성인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박은혜, 2014)에서 성인, 청소년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여 준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시설 이용 유무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시설을 이용한 집단보다 월등히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시설 이용 관련 특성은 성폭력 피해자 집단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이므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기가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 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피해의 심각도, 주변 자원 등)가 클

수 있기에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시설 이용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제공하는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자립, 자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가 시설 미이용 집단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 유무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효과적임을 보여주기에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집단 운영 방식 특성 중 매체 이용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매체를 활용하지 않은 집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체의 활용보다 타인과의 나누기 활동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지지를 통한 극복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청과 공감 속에서 억압된 정서표출, 경험 공유, 인식 확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수용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한노을, 2008)와 부합한다. 총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47이고 10회 이상은 .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집단 회기수가 10회기 미만으로 운영되었을 때 월등히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집단상담 회기는 지루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이어야 하고, 집단원들이 첫 회기부터 종결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기수를 적절하게 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강진령,

2011)과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집단 회기 수는 8회기가 가장 이상적이고 경우에 따라 10회기로 조정할 수 있다는 Greenberg(2003)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감사집단상담 프로그램(문은주, 2015a)에서는 15회 이상,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정귀임, 김장희, 2019)에서는 9회 이상, 행복집단상담 프로그램(문은주, 2015b)에서는 15회 이상,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수영, 김진숙, 2020)에서는 11~15회기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집단 회기 수에 대한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구 대상과 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회기 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프로그램 참여 동기의 경우,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 집단의 효과크기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참여 집단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비자발적 참여 집단의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해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선행연구들(김윤희, 김진숙, 2015; 조수연, 권경인, 이지현, 2014)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가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결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가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라는 맥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시설에 들어왔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중 하나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애초에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도움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가 있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 동기가 낮은 비자발적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동기가 낮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 크기에 대해서도 집단원 수에 관계없이 큰 효과 크기를 보이고, 집단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berg(2003)는 집단의 유형, 관심사 및 목적, 집단원의 연령 등에 따라 집단원 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생은 4~5명, 중학생은 7명, 고등학생은 10명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집단원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수의 연구가 축적된 후 집단 참여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집단 크기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속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외상후 성장, 용서, 삶의 만족도 등)으로 분류된 변인들이 위험요인(심리적 부적응, 수치심, 우울, 청소년 문제 행동 등)보다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양준석 외, 2017; 정귀임, 김장희, 2019)의 결과와 부합한다. 과거 외상 연구는 의학 모델과 질병 이데올로기로 인해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고, 심각한 정서적, 인지적 고통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부

정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외상 사건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Fairbank, Eblet, & Costello 2000; Joseph & Linley, 2008). 하지만 긍정심리학이 도입되면서 외상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 (1996)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김해리, 현명호, 하늘, 2020). 이를 통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관점을 전환시켜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관련 장애로 힘들어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습득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김경은, 정남운, 2018; 이재규, 2017; Hall, 2009; Linley & Joseph, 2004).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외상 이전의 심리·사회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전에 직면하고 대처하여 삶을 더 활력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집단상담을 구성하는 접근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와 별개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분야에서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도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 대상 연구의 경우 2016년 이후 연구가 4편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랜덤채팅 성범죄의 피해자 중 절반이 미성년 피해자(김혜선, 2021)이며, 그루밍 성범죄(Grooming sexual violence)<sup>6)</sup>에 취약한 대상도 아동 및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 취약한 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더 집중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넷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대인관계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에 변화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 기준들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에(김명희, 2001; 이형진, 금민호, 2014; Gil, 1988)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성인집단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혼성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 시기가 대부분 아동·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피해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성인기에 후유증이 지속되더라도 집단상담 참여 경험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6) 그루밍 성범죄(Grooming sexual violence)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성범죄. 피해자들 자신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개입 외에도 장기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집단 운영 시,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10회 이상 진행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매체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개입을 하였을 때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 구성 시 긍정적인 변인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에,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 및 성장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외상 후 성장을 돕는 요인에 대해 더욱 활발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 피해자, 생존자, 경험자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문현주, 2015; 최혜정, 2013). Crossley(2000)는 성폭력 피해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 생존자, 경험자로 나눈다. 성폭력 이후 6개월까지는 ‘피해자’ 관점으로 의료 및 심리치료 등 위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2년까지는 ‘생존자’ 관점으로 자원 활용 기술과 대처능력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후에는 ‘경험자’ 관점으로 성폭력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피해자, 생존자, 경험자로 연구대상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결과가 축적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10월까지 출간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학술지 논문의 경우 등재지 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그 외 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논문들도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여 흐름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메타분석 대상 논문이 12편에 불과하기에, 본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전통적 리뷰(동향분석)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 리뷰(메타분석)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연구방법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비

스로 인식되고 있고 상담분야 외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메타분석 대상 논문 표기)

- 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찰청 (2020).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대검찰청.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에서 검색.
- \*고혜경 (2017). 외상 후 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성폭력 피해 경험여성의 정서조절, 성폭력 귀인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춘옥, 김봉환 (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09-431.
- 구슬이, 김진숙 (2017).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55-77.
- \*권옥빈 (2016). 인간중심표현예술치료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소에 대한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혜수 (2008). 집단상담: 성폭력 피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효과. 상담학연구, 9(2), 485-499.
- 권혜수 (2014).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상담 내용 구성을 위한 델파이연구. 상담학연구, 15(1), 1-15.
- 김경은, 정남운 (2018).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39-764.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2014).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연구, 45(1), 141-173.
- 김명희 (2001). 근친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2013). 예술치료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대처방식과 표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화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19(2), 3-43.
- 김수영, 김진숙 (2020).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공격성 감소 효과 메타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27(11), 347-376.
- 김양중 (2019. 9. 16).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여성, 정신장애 위험 크게 높아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09649.html>에서 검색.
- 김연수, 김성진, 공보급, 강재욱, 문준중, 전동욱, 이상민, 주현빈, 정도운 (2016). 성인 여성 성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증상: 공간 피해자들과의 비교. 정신신체 의학, 24(2), 208-216.
- 김유진 (2019).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기반 치료회복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희, 김진숙 (2015).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1-21.
- 김정란, 장유정, 조항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트라우마(trauma) 연구동향(2001-2017). 상담학연구, 20(1), 67-91.
- 김지혜 (2011).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택 (2019).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학 연구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519-548.
- 김해리, 현명호, 하늘 (2020).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2), 417-441.
- 김현정 (2010).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평가도구의 상대적 유용성 비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해선 (2021. 2. 25). 랜텀채팅 성범죄 '미성년피해자'가 절반. 뉴스포스트.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380> 에서 검색.
- 김효인 (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00\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5-70.
- 나수연 (2013).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도상금 (2006).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증상을 매개하는 무력감, 귀인 및 정서 대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류분순 (2009). 무용동작 심리치료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뇌파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문은주 (2015a). 감사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111-129.
- 문은주 (2015b). 행복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3(3), 97-107.
- 문은주 (2018).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6(1), 147-171.
- 문현주 (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경애, 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다원, 이인혜 (2016).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간의 관계: 상대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53-172.
- 박민자 (2009). 집단 미술치료가 아동기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6(3), 445-463.
- \*박영화 (2014). 의미치료 집단상담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은선, 김진숙 (2021). 국내 성인 자살 예방 집단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4), 641-674.
- \*박은정 (2008). 성의식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은혜 (2014).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경현 (2017). 국내외 건강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13.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영혜, 심희경 (2001). 성학대 받은 아동의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에 놀이치료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5(2), 43-58.
- 신경민 (2014).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의 변화와 인지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기숙 (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255-1287.
- 신애자, 김용수 (2016). 감사 연구동향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1), 149-168.
- 양준석, 이정은, 유지영 (2017). 사별가족 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가족과 가족치



- 료, 25(3), 645-670.
- 윤덕경, 이미정, 김영란, 주재선, 김동식, 이인선, 정수연, 김현정 (2013).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5.
- 오성삼 (2002). (선행연구 결과의 통합과 재분석을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2020). 여성폭력 검찰 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84.
- 윤혜미 (2010). 아동성학대 연구 경향: 한국아동복지학, 32, 129-160.
- 원경희 (2008).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심리적 적응 모형 구축.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건승 (2020). 성폭력 남성 피해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난주 (2020). 성폭력 외상 사례를 경험한 미술치료사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명희 (2003).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 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미정, 윤덕경, 이현혜 (2015).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24), 1-236.
-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19), 1-236.
- 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성폭력·가정폭력 남성 피해자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13), 1-248.
- \*이소형 (2013).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타 요가집단프로그램이 심리적 부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현 (2015).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여성의 수치심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은진 (2007). 미술치료가 성학대 피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3(3), 165-197.
- 이인선, 이미정, 김기현 (2014). 성폭력 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22), 1-171.
- 이장호, 김정희 (2013).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과주: 법문사.
- 이재규 (2017). 외상 후 성장과 반추 간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 심리적 수용, 성장적 반추 간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진영 (2017). 아동기 성학대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인지행동치료 요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현경 (2019). 성폭력 피해소녀에게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형진, 금민호 (2014). 사이코드라마에 의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2), 51-65.
- 이효진 (2014).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유 증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수진, 신숙경, 김수임 (2020). 친족 성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가족과 가족치료, 28(1), 43-65.
- 전정윤 (2019. 7. 29). 오빠만 꺼안은 잔인한 나의 집.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general/47394.html> 에서 검색
- 정귀임, 김장희 (2019). 인터넷 및 스마트 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류분석상담연구, 9(2), 1-25.
- 정진옥 (2008).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재에서 경험하는 성과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 (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수연, 권경인, 이지현 (2014). 용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5(6), 2269-

- 2290.
- 조영성, 송지연, 이준영 (2016). 성폭력피해자를 돕기 위한 온라인 기반 외상-초점 인지행동치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대한불안의학*, 12(2), 79-85.
- \*조윤숙 (2004). 성폭력 생존자의 통합 집단상담을 통한 치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향,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4), 2099-2113.
- 채규만 (2004).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4(1), 13-31.
- 최유진 (2019. 7. 5).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351>에서 검색.
- 최지영, 신의진, 오경자 (2009).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외상초점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 검증: 탐색적 연구. *인지행동치료*, 9(1), 57-73.
- 최혜정 (2013). 성폭력 경험 여성의 용서과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늘 (2012). 용서 글쓰기치료가 성피해자의 우울과 수치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Campbell R., Dworkin, E., & Cabral, G. A. (2009). Ecological model of the impact of sexual assault on women's mental health. *Trauma, Violence, & Abuse*, 10(3), 225-24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hen, J. A., Deblinger, E., & Mannarino, A. (2004. 9. 1). Trauma-Focus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Psychiatric Times*, 21(10). <<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trauma-focused-cognitive-behavioral-therapy-sexually-abused-children>>
- Cohen, J. A., Mannarino, A. P., & Deblinger, E. (2006). *Treating trauma and traumatic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A., Mannarino, A. P., & Deblinger, E. (2017). *Treating Trauma and Traumatic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secon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le, P. M., & Putnam, F. W. (1992). Effect of incest on self and social functioning: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2), 174-184.
- Corder, B. F. (2000). *Structured psychotherapy group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adolescent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Crossley, M. L. (2000). Narrative psychology, trauma and the study of self/identity. *Theory and Psychotherapy*, 10(4), 527-546.
- Deblinger, E., Stauffer, L. B., & Steer, R. A. (2001). Comparative efficacies of supportive and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ies for young children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and their non-offending mothers. *Child Maltreat* 6(4), 332-343.
- Duval, S., & Tweedie, R. (2000). A nonparametric 'trim and fill' method of accoun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449), 89-98.
- Dworkin, E. R., Menon, S. V., Bystrynski, J., &

- Allen, N. E. (2017).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6*, 65-8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irbank, J. A., Ebert, L., & Costello, E. J. (2000). Epidemiology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D. J. Nutt, J. R. T. Davidson, & J. Zohar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is, management and treatment* (pp. 17-27). London: Martin Dunitz Ltd.
- Gibson, L. E., & Leitenberg, H. (2001). The impact of sexual abuse and stigma on methods of coping with sexual assaults among undergraduate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25*(10), 1343-1361.
- Gil, E. (1988). *Treatment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Walnut Creek, California: Launch Press.
- Greenberg, K. R. (2003). *Group counseling in K-12 schools: A handbook for school counseling*. Boston, MA: Allyn and Bacon.
- Hall, J. M. (2009). Thriving as becoming resolute in narratives of women surviving childhoo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3), 375-386.
- Halvorsen, J. E., & Solberg, E. T. (2020). Pathways to understanding - How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came to understand that they had been sexually abused.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9*(2), 205-221.
- Harvey, M. (1996). An ecological view of psychological trauma and trauma recove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3-23.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iggins, J. P., & Green, S. P. (2008).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Online]. Oxford: Wiley-Blackwell. Available at: <<http://tectuorials.com/Resources/AHRQ%20Modules/UoCTrainingMaterials/CochraneHB/booktext.pdf>>.
- Higgins, J., & Green, S. (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London: The Cochrane Collaboration.
- Jill, S. L., & John, W. M. (2009). 성폭력 피해가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Connections Workbook]. (김현수, 배민진, 신문희, 주지영). 서울: 하나의학사.
- Joseph, S., & Linley, P. A. (2008).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 stress: An integrative psychosocial framework. In S. Joseph & P. A. Linley (Eds.), *Trauma, recovery, and growth: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 stress* (pp. 3-2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ahtinen, H. M., Laitila, A., Korkman, J., & Ellonen, N. (2018). Children's disclosures of sexual abuse in a population-based sample. *Child Abuse and Neglect, 76*, 84-94.
- Lemaigre, C., Taylor, E. P., & Gittoes, C. (2017).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disclosing sexual abus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Child Abuse and Neglect, 70*, 39-52.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Littleton, H., & Breitkopf, C. R. (2006). Coping with the experience of rape.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30*(1), 106-116.
- Mason, F., & Lodrick, Z. (2013).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sexual assault. *Best Practice Research Clinical Obstetrics and Gynaecology, 27*(1), 27-37.
- Munley, P. H. (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305-310.

Perin, S. (2013). Prolonged exposure therapy for PTSD in sexually abu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10(24), 2619-2620.

Sharice, A. L. (1995). *The survivor's guide*. Los Angeles: Sage Books.

Steine, I., Winje, D., Nordhus, I. H., Milde, A. M., Bjorvatn, B., Grønli, J., & Pallesen, S. (2016). Langvarig taushet om seksuelle overgrep: Prediktorer og korrelater hos voksne som opplevde seksuelle overgrep som barn. *Tidsskrift for Norsk Psykologforening*, 53(11), 888 - 899.

Sweig, T. L. (2000). Women healing women: Time-limited, psychoeducational group therapy for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17(4), 255-264.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Yalom, I.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4th ed)*. New York: Basic Books.

원고접수일: 2022년 3월 11일

논문심사일: 2022년 3월 29일

게재결정일: 2022년 5월 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3, 533 - 561

---

# The Research Trends of Sexual Assault Victim Studies and Meta Analysis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Lee, Ah Reum      Kim, Jin sook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and to conduct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s by analyzing 162 studies on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research trends analysis focused on the number of studies by year, subjects, contents, and method of the study. For the meta-analysis, 12 articles were selec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ha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06. Second, as for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studies are 54(33.3%), followed by the studies for qualitative studies, literature review, mixed research in order. Third, as for the participants, 45 studies(27.8%) are for adults, followed by the studies for children, adolescents in order. Fourth, concerning study themes or variables, 70(43.2%) are for emotion, followed by trauma-related, physical response-related, in order. Fifth, from 12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victims of sexual assault 101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with an average effect size of 1.073.

*Keywords: Sexual assault, Sexual violence, Victim, Research trend, Group counseling program, Meta analysis*